

자녀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

김성목 장로(두란노 아버지학교 국제운동본부장)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꿈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생을 마치고 떠날 때, ‘아버지, 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는 아마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아버지, 난 아버지가 싫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분이었을지라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이셨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어느 아버지학교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남자로서는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멋진 남자이셨어요.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러나 전 아버지를 아버지로서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전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버님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늦게 들어오시면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아버지는 절 부르셔서 무릎에 앉히시곤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채로 '년 열심히 공부해서 이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배우신 것이 없고 당시엔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 밖에 없으셔서 그 일을 하셨지만 최선을 다 하셨고, 늘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셨고 가난하셨지만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끝을 흐리는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난 당신을 제일 존경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그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다움을 갖췄을 때, 남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된 후,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자녀를 낳아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감사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자녀들은 '어머니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느 사회단체와 함께 홀어머니와 그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따로 떼어 놓고 교육을 시킨 후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 편지를 쓰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중 한 아이의 편지를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아빠라고? 이 짐승 같은 X. 이 광우병에 걸린 소만도 못한 X야. 너도 이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신을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한 기억에 대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아이는 분노를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아들의 경우 또 여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하는 것을 보며 자라는 경우 분노를 갖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고 거칠어지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재앙’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은 ‘남자란 저렇게 여자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이구나.’ 란 생각을 갖고 자랍니다.

또 딸은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며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자녀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도 이담에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딸은 “나는 이담에 아빠같은 사랑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자녀들의 진정한 고민은, ‘엄마와 아빠가 늘 싸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하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울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중요감을 느끼며 자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고 합니다. 안정감, 중요감,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또 어머니를 꼭 안아 주는 모습, 손잡고 외출하는 모습, 또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요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거들어주고 하는 모습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며 역할에 대한 좋은 교육이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

별히 사랑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칠 때,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를 경험하며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인격을 만들어내고, 올바른 인격이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위대한 가치가 위대한 인격을, 인물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먼저 부부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혹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싸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혹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한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거칠게 반항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딸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딸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야단치기에 앞서, 지금 그 아이의 어머니인 아내에 대한 나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닦하기 전에 내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시키시고 싶다면 아내와 포옹하는 모습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칭찬하는 모습도, 아내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욕하거나, 짝아 내리거나 때리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하는 장면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가정은 모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